

샘보

주님께서 해주신 모든 일을
하나하나 되되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 크신 일들을
깊이깊이 되새기겠습니다.

시편 77편 12절

주후. 2017년 11월 22일 창간.

마름달; 11월의 순우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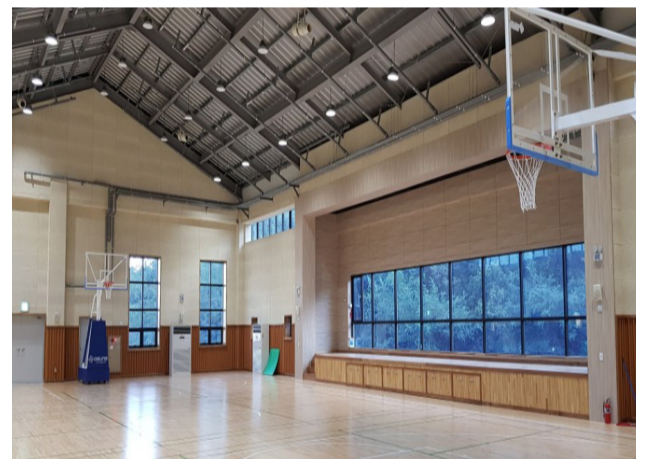
샘물, 새로운 공간이 생긴다.



△ (좌) 은혜관 (우) 샘물관



△은혜관이 지어지는 과정



△ 6층 체육관

모두가 기다렸던 은혜관의 완공

고등부가 모여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는 공간이며, 이곳에서 중학생들의 샘물수업이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3층과 4층에는 은혜 샘물초등학교 교실이 있다. 이곳은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공간이다. 샘물중고등학교 학생은 되도록 출입을 삼가해 주길 바란다.

다. 실내용 운동화를 신고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에서는 중학생이 스포츠클럽과 다양한 실내 스포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고등학생 역시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관을 이용하여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은혜관에는 지원본부, 연구실(1층), 학생들이 위십을 연습할 수 있는 거울연습실(2층) 등과 같은 공간들이 있다.

2018년 9월, 많은 이들의 기도와 기대 속에 샘물중고등학교의 새로운 건물인 '은혜관'이 개관하였다. 샘물인이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은혜관에 있는 여러 학습공간들은 샘물인들에게 배움과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샘보가 그 공간 각각에 담긴 의미와 목적, 그리고 계획을 알아보았다.

은혜관은 6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층마다 샘물인이 필요로 했던 시설이 위치해 있다. 제일 먼저 소개할 1층에는 보건실과 과학실이 있다. 보건실에는 샘물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보건선생님이 계시고 그 밖의 치료시설들이 겸비되어 있다. 컨테이너에 자리했던 때보다 환경이 쾌적해져 샘물인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공간적 여유가 생긴 과학실에서는 STEAM 융합인재교육을 효율적으로 배우도록 과학과 선생님들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다. 과학실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전보다 생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소개할 공간은 2층이다. 2층에는 은혜샘물교회에서 사용하는 중예배실(심성민홀)이 위치해 있다. 주일에는 은혜샘물교회 중



△주양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샘물인들

많은 샘물인들이 기대하고 궁금해하던 주양 도서관은 5층에 있다. 도서관에서 책을 대여하고 읽을 수 있다. 또한 더 다양하고 폭넓은 수업을 할 수 있는 소그룹실도 자리해 있다. 도서관에서 학생들이 더 많은 것을 얻고 알아갔으면 하는 마음에 선생님들께서 근방의 여러 도서관들을 답사하신 후 거듭된 연구 끝에 탄생한 공간이다.

꼭대기층인 6층에는 체육관이 위치해 있

이렇게 1층부터 6층까지 샘물인들이 기대했던 시설들로 알차게 구성된 은혜관에서 앞으로 더 다양한 수업과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샘물 앞에 허락된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샘물 들인은 단순히 멋있게 완성된 건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관의 설립을 허락하셨다.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도 특별한 안전사고가 없게 하셨으며 매일, 천천히, 조금씩 지어지는 건물을 기대하게 하셨다.

우리 샘물인들이 건물 너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설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실 것이다. 앞으로 은혜관에서의 모든 수업과 행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기를 다 함께 기도로 중보하길 바란다.

박소연, 박서영 기자

가을 컨퍼런스

샘물, 주어진 몫을

찾다

8.22~8.23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학과설명회, 4기 홍성연 졸업생

매년 가을, 샘물은 진로 탐색을 위한 컨퍼런스로 학기를 시작한다. 3일 간의 컨퍼런스 기간 동안 학생들은 관심 분야의 멘토들을 찾아 배움을 얻는 멘토 만남 시간을 갖는다. 또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운 후 각 전공과 관련된 대학교를 방문하기도 한다. 졸업생 선배들의 학과 설명회도 빼놓을 수 없다.

예배로 시작되는 가을 컨퍼런스, 임우현 목사님이 “새 일을 행하십시오”를 주제로 이사야 43장 18절~21절 말씀을 전해 주셨다.

올해도 샘물을 졸업하신 선배 열일곱 분께서 열여섯 개 학과 설명회를 열어 주셨다. 졸업생 선배들께서는 전공 학과를 설명해 주셨고, 후배들의 고민인 진로와 대학 진학, 공부법 등 여러 방면에서 실제적인 조언을 해 주셨다. 열아홉 분의 사회인 멘토님들을 통해 멘토와의 만남이 진행되었다.



△수원중앙법정에서 판사 멘토님과 시간을 가진 샘물인들

멘토님들께서는 직업 현장으로 샘물인을 직접 초대해 주시기도 하고, 직업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다. 또한 학생들에게 직업의 의미와 직업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법을 보여주셨다. 학생들은 학과 설명회와 멘토와의 만남을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구체적으로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학과 탐방은 학생 주도적으로 진행되었다. 11학년 학생들은 탐방하고 싶은 대학교와 학과별로 미리 조를 꾸렸다. 조에 편성된 학생들은 스스로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대학교에 다녀오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11학년에게 이번 대학 탐방은 대학교가 어떤 곳인지 실제로 알아 가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를 통해 진로와 진학 설계에 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좋았던 만큼 아쉬움도 있었다.



△대학교 탐방에 참여한 11학년 이준하 학생

예비중등과 7학년은 잠월드 탐방을, 8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멘토와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 11학년은 대학교 학과 탐방을 다녀왔다.

“가을학기 대학탐방을 하러 갔을 때 상상만 하던 서울대학교에 가게 되어 많은 기대를 하고 캠퍼스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울대 캠퍼스 거리 곳곳을 거닐며 대학교 숙소, 식당, 중앙 도서관, 관심 있는 학과 건물 등 여러 가지 캠퍼스 건물들을 보면서 '대학교란 이런 곳구나. 대학교 생활은 정말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볼 게 많았던 대학탐방이었기에 하루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이루어졌던 점과 인터뷰나 안내 없이 그저 구경만으로 끝내야만 했던 점이 다소 아쉬웠습니다.”

-11학년 3반 김지민

가을 컨퍼런스는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 학과와 직업을 탐색하고 조언을 얻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으로의 가을 컨퍼런스가 더 체계적이고 세밀하게 진행되어 샘물인들이 주어진 자신의 몫을 찾아 가꾸길 소망한다.

장준하 기자

노작, 성실과 인내의 추수



△노작수업에서 경작하고 있는 배추

가을은 뿌린 것을 거두는 계절이다. 2018 가을, 샘물인 역시 그동안 성실히 준비한 학업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계절의 변화에 발맞춰 학교 입구에 자리 잡은 텃밭의 배추도 곧 수확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노작 수업을 하며 이제 1년 농사의 마지막 단계인 추수를 앞둔 7학년 김시현 학생을 만나 보았다.

01. 노작 수업의 수업 목표는 무엇인가요?

-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을 일구고, 열매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배움입니다.

02. 텃밭에 지금 어떤 작물을 기르고 있나요?

- 지금은 배추를 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옥수수, 상추, 강낭콩, 완두콩을 키웠는데 모두 빗물에 쓸려나갔습니다(웃음).

03. 추수는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 김장철쯤 배추를 수확할 예정입니다.

04. 심고 싶은 작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 토마토를 심고 싶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05. 노작 수업이 즐거운가요?

- 모든 순간이 즐겁지는 않지만, 땅을 일구는 일에는 확실히 재미를 느낍니다.

06. 노작 수업의 어떤 부분에서 보람을 느끼나요?

또 고됨을 느낄 때가 있나요?
- 공부시간이 줄어들 것이라는 느낌을 받거나 가끔은 체력적으로 힘들 때도 있지만 작물들이 자라는 과정을 지켜볼 때, 수확한 뒤 집으로 가져와서 키운 작물을 먹을 때 아주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07. 노작 수업을 통해 얻은 것 중 특별히 기억나게 있으신가요?

- 우선 식물 키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쓸모가 있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 학업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농사를 짓다 보면 수많은 난관이 그 과정에 숨어 있다. 땅이 갈라지는 듯한 가뭄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가 일어나 쓸려나가기기도, 어쩔때는 수확을 앞둔 시기에 서리가 내려앉아 수확하기 어려운 경우도 생긴다. 매 끼니 우리가 먹는 채소와 과일들은 이러한 고비들을 넘기고 나서야 밥상 위에 올라오게 된다. 따라서 수많은 고비를 넘겼을 때야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농작물은 자라나야 하고, 농부는 그들을 가꾸고 거둬들여야 한다. 가꾸어야 거둬들일 수 있고, 거둬들일 때에야 맘껏 가꾸었던 지난날의 의미를 가진다. 수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은 무엇이든 절대 순탄치 않다. 작년의 풍년도 올해의 수확을 보장해 줄 수는 없는 법이다.

풍성한 추수에는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함께 하는 우리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삶의 자리에서 매순간 성실한 자세로 임할 때 추수의 기회가 찾아온다. 한 해의 마지막까지 은혜의 열매를 맺어가는 샘물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조우석 기자

2018 샘물이 '찬양'했다.

'샘물은 네 찬송이시요'(신명기 10 : 21절)



2018 처음 진행된 '샘물 찬양하다'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찬양 대회로써 큰 의의가 있는 행사였습니다. 예비중등부터 11학년까지 폭 넓은 학생들이 참여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샘물인들의 참여하는 태도에 대한 아쉬움과 일부 학년의 참여도가 미약했다는 아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먼저, '샘물 찬양하다'를 진행하시고 학생들의 참여를 격려하신 클랑쌤과 샘물 찬양하다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01. 이번 '샘물 찬양하다'를 어떻게 여시게 되었나요?

- 샘물인들 중 찬양을 특기로 하는 아이들이 많아, 학생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뽐내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02. '샘물 찬양하다'를 준비하시며 아쉬우셨던 점이 있으신가요?

- 좀 더 폭 넓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했던 점 등이 아쉬웠습니다.

03. '샘물 찬양하다' 후 느끼셨던 점을 간략히 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었다는 점, 다양한 양상과 다양한 음악으로 찬양을 했다는 점도 좋았고 적극적으로 찬양자를 응원하는 친구들이 많아 더욱 좋았습니다. 실제로 참여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심을 다해 열심히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처음으로 열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능 대회"

'샘물 찬양하다'는 올해 처음으로 열린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능 대회였습니다. 하지만 처음인 만큼 그에 따른 아쉬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클랑 선생님과 함께한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간 내용은 '폭 넓은 샘물인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8,9학년 학생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10학년 학생들이 이번 대회에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무대 뒤에서 박수치는 사람 역시 주인공이다"

이번 찬양 대회에서의 또 다른 아쉬운 점은 대회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무대에 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평가하던 것입니다. 관중석에서 웃음소리와 비꼬는 소리가 자주 들렸고 착석 태도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무대 뒤에서 박수치는 사람 역시 주인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무대에 집중하고 끝난 후에도 그 노력과 열매에 박수 쳐주는 것이 관객의 건강한 태도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번 대회에서 보였던 샘물인들의 모습은 경청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가한 예비중등 학생들

이번 2018 처음으로 열린 '샘물 찬양하다', 지금은 막 걸음마를 댄 신생 대회이지만 나중에는 샘물 전체를 대표하는 대회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샘물 찬양하다'를 빛내주신 선생님과 샘물인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샘물의 빛과 소금 되는 무대 부탁드립니다.

김수환 기자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샘물중고등학교 생활부와 나는 학생들의 질문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오면서 많은 점이 개선되거나 변화되었다. 동시에 학생들의 궁금증과 질문 또한 늘어났다. 최근 샘물중고등학교 생활부의 동향, 또한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들을 추려 샘보가 직접 질문하고 학교가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01. 가을 학기부터 교복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고 학교 차원 교복 대여 시스템 등의 도입이 눈에 띄는데, 특별히 교복에 집중하시는 데 이유가 있나요?

- 교복은 학생의 공식적인 의복이며, 신분과 소속감·유대감을 불러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교의 대표적인 교칙 중의 하나로 학생은 교복을 바르게 착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 여름학기에 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피드백이 많아 생활부와 풀뿌리 학생자치회가 함께 고민한 끝에 교복대여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등교시 교복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교복을 대여함으로써 앞서 이야기한 교복의 의미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교복 대여소 운영 결과, 거의 대다수의 학생들이 교복을 바르게 착용하게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교복 대여 횟수가 줄고 있습니다.

02. 교복에 대해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후드티 안에 또 교복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고, 일부 학생들은 아직도 후드티 제작 이유에 대해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 교복은 학교에 상징성과 신분에 맞는 아름다

움을 나타내기 위해 스타일, 색채, 활동성, 경제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후드티는 학생들의 성장단계와 기능성을 고려하여 고민한 결과 기존의 셔츠와 자켓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제작된 것입니다. 후드티 안에 카라티를 입는 것은 체온의 변화로 인해 후드티를 벗어도, 교복을 제대로 갖추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후드티만 입고 등교했는데, 1교시에 체육 활동 후 체온이 올라가 더 이상 후드티를 입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후드티 안에 입고 온 아무 반팔을 입는 것이 아니라, 미리 입고 온 카라티(교복)를 입으면 됩니다. 안에 입는 카라티는 반팔, 긴팔 상관없이 개인의 편의에 맞게 착용하면 됩니다.

03. 샘물문화축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 축제는 11월 30일이며 무대 예선은 11월 8일입니다. 모의점은 11월 13일까지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다음 주 안에 축제의 말씀 주제, 드레스 코드 등이 공지될 예정입니다. 샘물인들의 많은 관심과 활발한 참여 바랍니다.

04. 샘물문화축제 공연 심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샘물문화축제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맞게 1곡을 지원할 경우에는 찬양 또는 위십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 은혜를 나누는 것 외에 다른 무대도 보여주고 싶다면, 1곡은 필수적으로 찬양(위십)을 준비하고, 1곡은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면 됩니다.

05. 체육관과 운동장 주말 사용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말에 운동장과 체육관은 교회에서 관리합니다. 장소를 사용함에 있어 교회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담당 지

도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사가 없을 경우에는 안전이 확보되지 않기에 주말에는 체육관과 운동장 사용이 불가하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06. 신발장을 다시 만드신 이유와 보안과 안전을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 신발장을 만든 이유는 국토순례 연습 때 발생하는 상황처럼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 사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대비하고, 환기를 위해 만든 것입니다. 신발장 보안에 대해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7. 학교 교칙을 공개할 수는 없나요?

- 학교는 준수해야 할 교칙을 학생들에게 일상의 삶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칙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교칙을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경우 학생들이 교칙 안에 너무 간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샘물은 강요보다는 학생들의 자정 능력과 내면의 힘을 신장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교칙에 대하여 헛갈리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께 질문하여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샘물이 지향하는 모습 중 하나는 소통하는 공동체이다. 그 어떤 공동체라도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샘물중고등학교가 소통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교, 학부 모님들을 비롯한 모든 샘물중고등학교 주체의 노력과 청자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샘물이 되기를 소망한다.

이지호 기자

전지적 샘물 시점

인권; 너와 내가 허물어야 할 '선'에 대하여

/ 생각이 깊어가는 계절인 가을, 샘보는 새로운 프로젝트인 '샘보의 생각'을 진행했습니다. '샘보의 생각'에서 맺은 우리의 기록들로 샘보는 넉넉한 가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현 지면에 10월 '샘보의 생각' 중 몇을 추려 씁니다. 글은 타인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들여다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샘보는 언제나 독자와의 소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면에 실릴 자유로운 생각을 구합니다.

언제든 샘보에게 기고해주세요. 샘보는 학생이만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기고될 글은 편집상의 이유로 선별 및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합니다.

자유

퓨마는 생각했다. '문을 잠그지 않은 사육사는 나의 자유를 응원하고 있다'고. 사실 그렇든 그렇지 않은 상관없는 일이었다. 어차피 사육사를 다시는 보지 못할 테니까. 미는 대로 순순히 열리는 문을 열고 나섰다. 사람만이 드나들던 길목을, 퓨마가 지났다. 동물보다 사람을 더 많이 봐왔다면 나도 동물보단 사람에 가깝지 않을까, 스치듯 생각하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발길을 옮겼다. '아, 언제나 그러왔던 바깥은 이리도 넓구나.' 내 삶을 지내온 저 차가운 울타리 속은 가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가.' 풍선을 든 어린 아이에게 더러운 퓨마 우리를 손으로 가리키며 뭐라 뭐라 열심히 중얼거리던 여자와 마지못해 흥미로운 척 귀를 굽적이며 표지판을 대충 훑어보던 울타리 밖의 남자. 그것이 퓨마의 삶이었다. '신기한 구경거리'로서의 삶. 퓨마는 이제 그들이 서 있던 울타리 밖에 있다.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생소한 생각이었다. 퓨마 앞의 저수지에 흐르는 물처럼 오래 머무르지 않을 생각이었다.

순간, 퓨마는 몸을 관통하는 아찔한 고통을 느꼈다. 누군가 소리쳤고, 사람들이 몰려왔고, 그 중에 다시는 보지 못할 줄 알았던 사육사도 있었다. 예감이 좋지 않았다. 퓨마는 쫓기고 있다. 퓨마는 사육사와 눈을 맞추려 애썼다. '당신은 나의 자유를 응원하잖아.' 그러나 다시 마주한 사육사의 얼굴엔 그의 성공적인 탈출에 대한 환희가 아니라 공포와 혐오가 떠올랐다. 퓨마는 절대 사람에 가까울 수 없었다. '그래, 처음부터 나의 자유를 응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야.'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다. 더 이상 동물원의 동물로 살고 싶지 않았다. 퓨마는 직감했다. 우리 안에 갇혀있던 '신기한 구경거리'로서의 동물이 아닌 자유로운 짐승으로서의 난 아무런 쓸모가 없으니, 잡히면 죽겠지. 자신을 키워준 사육사라고 생각했는데, 그를 구속했던 사육사였다. 퓨마는 아무에게도 부탁한 적이 없다. 그는 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회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주장한다. 모두를 동등한 선(線) 위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상이라는 백지장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단 하나의 선일 것이다. 이 선이 바로 우리의 이상이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우리의 삶은 모순중이의 모습에 가깝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 인한 개인주의가 퍼지면서 나와 타인 사이에 긋는 선은 더욱 견고해졌고, 바로 그 선이 나 자신을 지키는 인권이 되어 버렸다. 남/여, 세대, 장르, 인종, 색상, 국가, 땅, 남북한, 수입, 등급, 학벌 등 우리는 사소한 것에도 끊임없이 선을 긋는다. 나의 인권, 나의취향, 나의 선호가 가장 중요하지만, 돌아볼 여유가 생겼을 때 남의 인권을 고려하자는 이야기이다. 이 시대의 인권은 경제적, 심적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인권이며 애초의 보편적 인권의 가치는 무시한, 철저히 개인만을 위한 이기적인 인권이다. 진정한 인권은 이기적인 개인의 자유가 아닌 공동체주의 안에서 헌신과 공유에서 찾아야 한다. 시대가 만든 나와 타인 사이의 선을 먼저 지운 뒤에야 진정한 의미있어지는 것이 인권이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는 너무 모순된 지향점으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자신의 이익은 수단에 구애받지 않고 지키려는 본성을 가졌으면서, 정작 사회적 약자를 소중히 여기고 돌본 타인은 위인전에 올리고 존경한다. 관계 사이의 낯선 경계를 허무는 것이 선(善)한 일, 즉 존엄한 일임을 알지만 정작 본인들의 삶엔 적용이 없다. 인류 역사의 '혁명'을 생각해 보자. 흔히들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정보혁명을 떠올릴 것이다. 인권의 발견은 인류 역사의 기동인 혁명 사이에 낄 수 없었다. -실은 아직 인권에 대한 우리 생각이 혁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그를 지킬 권리를 '인권'이라 이름지은 그 날을 기억한다. 하지만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그 날 이후 인류는 아마 숭고한 발견을 했다는 사실에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인권에 대한 깊은 사유를 멈춘 것만 같다. 당시 인권의 발견은 1-2%의 상류층들이 누리던 사회적 특권들이었다. 그런 것들을 98-99%의 일반 시민층이 함께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사람들이 공감하여 일어났던 것이다. '특권'을 나누어 갖기 위해 시작된 인권 선포 이후 약 230년이 지난 지금,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1700년대의 인권을 우리고 있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한 회사 노동조합의 시위 현장을 보자. 그들은 현수막에 커다랗게 무언가 써붙인다. '이 회사는 우리 노동자들의 권리를 짓밟습니다!' 그 후 법정에서 보면 회사 측 관련인들도 노조가 그들의 권리를 방해했다고 하지 않는가. 단적으로 이 상황에서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묻는다면, 나는 문맥상 권리라는 단어가 이익이란 말을 대신하여 쓰이고 있다는 점이라 답할 것이다. 인권을 가장 중요한 가치라 명명한 헌법 위에서도 사람들은 인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너무나 가벼운 '이익'을 변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익은 인권의 한 부분일 뿐이지 인권 자체가 될 수 없다. 나의 선(線), 이익을 누가 침범했는지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개인이 삶의 선(善), 고귀함을 침범 당했는지를 조명해야 하며 앞으로 어떠한 인권을 존중하며 살아갈지를 의논해야 한다.

- 양지혜

롯이 혼자서도 자라날 수 있었다. 삶의 의미를 스스로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점점 무뎠어지는 감각 속에서, 호기심으로 위장한 감옥과도 같았던 동물원 안에서 퓨마는, '신기한 구경거리'로서의 삶을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다른 동물들의 더러운 우리에서 풍겨오는 냄새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한 채, 끝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총을 맞고 죽어갔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동안, 잠시나마 느낀 자유에라도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자유를 꿈꿀 수 없게 만든 인간을 증오해야 할지 고민하다 결국 처음 이자 마지막 자신의 뿔박질을 곱씹으며 퓨마는 죽어갔다.

다음 날 대전 중앙 과학관은 이번 사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퓨마를 박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완전히 죽어진 삶을 사는 것조차 실패한 퓨마는 이제 과학관에서 온 몸뚱아리를 다 드러내고선 아름답게 전시되어 또 하나의 그림으로 존재하겠지. 관상화처럼 살아가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퓨마는 그러나 생존이 아닌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고, 세상은 그를 향해 잔인한 총알을 박아 넣었다.

우리는 모두 한 마리의 퓨마였던 것이다.

- 공유빈

